보도자료 ★ 11월 12일(목) 13: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보 도 자 료	
기 관 명	신창여자중학교	학교(기관)장	정순영
배 포 일	2026. 11. 12.	담 당 자	하소안(070-4949-1091)
붙 임	사진(○), 영상(×)		

웃음으로 가까워지고, 마음으로 하나된 우리!

「함께 성장하는 우리」 3학년 1박 2일 캠프 운영

신창여자중학교(교장 정순영)는 11월 6일(금)부터 11월 7일(토)까지 1박 2일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 1박 2일 캠프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프는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 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확대하여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협동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해 배려와 협동심을 기르며, 활기찬 신체·체험 활동으로 학교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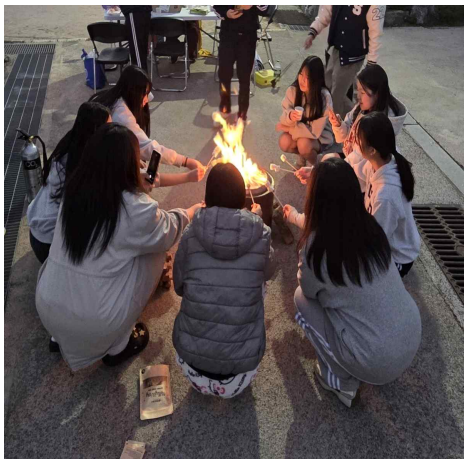
캠프 첫날 학생들은 함께 바비큐 파티를 즐기며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바비큐 파티 이후에는 장작을 지펴 캠프파이어를 진행하고 불에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캠프만의 정취와 낭만을 만끽했다. 이어 외부 강사를 초청한 '생명 존중의 밤'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신 및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학급 협동 프로그램은 웃음과 활기가 가득한 시간으로 꾸며졌다. '고요 속의 외침', '랜덤 질문', '몸으로 말해요'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평소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친구들의 새로운 모습과 생각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로를 위해 준비한 마니또 발표와 선물 증정 시간에는 고마운 마음과 즐거움을 나누며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친밀감을 더욱 높였다.

웃음이 가득했던 1박2일 캠프의 마지막은 가족을 향한 진심을 전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평소 쑥스러워 쉽게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장난기 가득했던 학생들도 편지를 쓰는 동안에는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또한 학생들을 위해 부모님들이 몰래 전해온 사랑과 응원이 담긴 편지도 깜짝 전달되면서 감동을 더했다. 서로의 마음을 전달한 이 시간은 학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따뜻한 순간이 되었다.

이후 영화 감상과 휴식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다음 날 아침에는 기상 후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1박 2일간의 캠프를 마쳤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함께 웃고 경험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과 교사, 친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신창여자중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과 공동체 중심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 설명]

① 생명을 지키는 밤 프로그램/캠프파이어/몸으로 말해요 등 활동 사진.

②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시간.

③ 3학년 1박 2일 캠프 단체 사진.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행정원 하소안(☎070-4949-1091)